20억원 편취, 간 큰 보험사기단 검거

자동차공업사와 보험사 직원의 고의·허위 사고로 6년간 직원 이중체용하는 지능적인 방식으로 범행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군산 일대에서 고의로 차량을 파손하거나 차량에 타지 않은 동승자를 허위 탑승자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20억원의 부당 보험금을 수령한 일당을 검거했다.

자동차공업사와 보험사 직원이 짜고 지능적인 고의·허위 사고로 보험금 20억원을 편취한 보험사기단이 검거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군산 일대에서 고의로 차량을 파손하거나 차량에 타지 않은 동승자를 허위 탑승자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20억원의 부당 보험금을 수령한 A공업사 대표 겸 조직폭력배 김모씨(42)와 상무 김모씨(30) 등 2명을 구속했다.

또한 이들과 함께 보험사기를 벌인 공업사 7곳의 대표 및 영업상무와 보험사 출동요원 56명을 불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10년 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직원을 이중체용하는 지능적인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

B공업사 대표 최모(42)씨는 자사의 영업상무를 보험사 출동요원으로 이중체용 시켜 지인 21명과 함께 연식이 오래된 외제차량 엔진에 고의로 물을 붓는 등 여러 방식으로 140차례에 걸쳐 9억 6천만원을 편취했다.

구속된 김모씨(30)는 A공업사 영업상무로 일하면서 9명과 함께 벤츠 등 외제차량을 이용해 교통 법규 위반차량에 고의추돌 하는 등 48회에 걸쳐 2억 7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C공업사에 소속된 박모씨(42)는 보험 현장출동요원으로 활동하며 외제차량을 상호 공모해 출동하는 등 102회에 걸쳐 7억 3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차량이 번호를 바꿀시 사고이력 파학이 어려워지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고차량으로 보험금을 타낸 후 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며 번호를 바꾸는 방식으로 차량 1대당 많게는 27번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냈다. 이들은 잦은 사고로 차량이 폐차직전에 이르자 일부러 차량을 완파에 가까운 사고를 만들고 보험사로부터 전손처리금을 타내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군산 일대에서 외제차량들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오랜 장기수사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이 수사 중 입수한 CCTV에는 신호 대기 중에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을 운행하지 않다가 신호 위반 차량이 오면 일부러 급발진을 해 사고를 내는 행위가 적나라하게 담겨있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차량번호판을 바꾸면 사고이력 확인이 어렵고, 연식이 오래된 외제차량의 경우 부품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점을 이용해 영업상무를 보험사 직원과 공모하는 악의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자행했다"며 "차량번호가 아니라 차대번호로 보험사 사고이력을 관리할 수 있게 해야만 이와 같은 범죄가 벌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1만5451세대에 1억5100만원

전주시가 올해 상반기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에너지를 절약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1만5451세대에 1억5100만원의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탄소포인트제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줄여 가정, 상업,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프로그램이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산정하며, 이번 인센티브는 올해 상반기 동안의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별로 과거 2년간 상반기 평균사용량과 비교해 에너지 절감율이 5% 이상 감축한 세대에 탄소포인트를 부여하여 현금, 그린카드 형태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올 상반기 세대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인 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주시 전세대의 약 20%인 5만760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 가입세대의 47%인 1만5451세대가 전기 등의 에너지를 5%이상 절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환산하면 3400톤에 상당하는 것으로 소나무 68만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

이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탄소포인트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와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동주택 에너지진단 컨설팅 사업, 저탄소 생활 실천 캠페인 등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지급대상자 중 기부 희망 세대의 인센티브는 사회복지단체에 기부, 소외계층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전등 끄기 및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우리의 작은 노력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시민 의식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많은 시민이 탄소포인트제에 적극 참여해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인터넷 홈페이지(www.cpoint.or.kr) 접속해 가입하거나, 전주시 환경과 기후변화팀(063-281-2332) 또는 가까운 동 주민자치센터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내달 19일까지 김장쓰레기 종량제봉투 이용 배출 한시적 허용

전주시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쓰레기의 일반종량제봉투 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전주시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를 김장쓰레기에 대한 비상 처리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음식물쓰레기를 한시적으로 소각용 종량제 봉투(50ℓ)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전주시 음식물쓰레기가 평소 하루평균 237톤 가량 배출되는데 반해 김장 성수기에는 평소보다 27% 정도 늘어난 평균 300톤 이상이 배출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김장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이 기간에만 소각용 종량제봉투(50ℓ)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이 기간 외에는 반드시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단독주택 및 음식점은 김장쓰레기가 많이 발생해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가 부족할 경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20ℓ) 또는 소각용 종량제봉투(50ℓ)에 담아 음식물수거용기와 함께 문 앞에 배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각 가정별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20ℓ) 또는 소각용 종량제봉투(50ℓ)에 담아 공동수거용기 옆에 배출하면 된다.

김장쓰레기의 배출방법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기계고장의 원인이 되는 마대자루와 노끈, 양파망 등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한 후 배출하고, 배추쓰레기는 잘게 썰어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배출하고, 마늘대와 고추꼭지는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시는 김장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주민들의 협조사항을 홍보 스티커와 전단지로 제작, 배포하는 등 김장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 택시, 수능일 아침 무료로 달린다

'수험생 무료 수송차량' 스티커 부착 곰두리콜·전주콜 통해 신청 가능

전주시 13개 법인택시 회사가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오는 17일 오전, 수험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행된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대성교통과 한일교통, 대광운수, 대림교통, 수정택시, 삼화교통, 신진교통, 한솔교통, 협성상운, 이화교통, 완산교통, 안전교통, 성심택시의 전주시 13개 법인택시회사 기업별 노동조합연합회(회장 박인구)는 수능시험일 새벽부터 오전 9시까지 수험생 무료 수송차량을 운행한다.

무료로 운행되는 택시 전면에는 차량 식별을 위해 '수험생 무료 수송차량' 스티커가 부착되며, 무료택시에 탑승한 수험생들이 수험표를 제시하면 수능시험 장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수능당일 무료택시 이용은 곰두리콜, 전주콜을 통해 신청하거나, 시내 곳곳에 배치되는 수험생 무료 수송차량 스티커 부착 차량을 이용하면 된다. 수능일 수험생 택시 무료 수송은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로, 전주지역 기업별노조에 소속된 택시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박인구 기업별노조 위원장은 "수험생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능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법인 택시 운전자들이 따뜻한 응원의 말을 건네며 운행하기로 했다"며 "수능일 출근길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수험생들에게 택시를 양보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수능시험일 아침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 등의 차량운행 급증으로 인해 시험장 주변의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각 시험장별 교통지도 강화 및 수험생 교통편의 제공을 골자로 한 교통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전주지역 22개 시험장 주변에는 이날 교통지도 인력이 편성돼 시험장 200m 전방에서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고, 시험장 반경 2㎞이내의 주요 간선도로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또, 차량 13대를 이용해 지각이 우려되는 수험생들을 고사장까지 긴급 수송키로 했다.

시는 수험생들의 고사장 입실편의를 위해 수능당일 오전 개인택시 부제를 일시 해제하기로 했다. 현재 전주시 개인택시는 총 2340대로, 시는 전주시 개인택시 단위조합의 협조를 얻어 수능 당일 휴무하는 730대의 부제를 일시 해제해 운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시는 버스를 이용해 시험장을 찾는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일 당일 오전 결행 및 지연운행이 없도록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와 5개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수능 당일 수험생들이 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시험장에 무사히 도착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관내 중학생 대상 '직업체험의 날' 행사 개최

전주시가 미래 공무원을 꿈꾸는 중학생들에게 폭넓은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전주시는 10일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맞춰 전주지역 중학생들에게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나전공(나는 전주시 공무원이다) 직업체험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 프로그램은 13세 이상에서 29세 미만의 전라북도 청년들이 꿈꾸는 직업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관심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주기린중학교와 서곡중학교 등 7개 학교 학생 90여명은 이날 전주시청을 방문해 공무원 멘토와 함께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참여 학생들은 부서별로 배정을 받아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전주푸드 매장,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둘러봤다.

특히 시청 생태도시계획과를 방문한 학생들은 막연히 지나쳐왔던 도로명 주소와 건물번호 등이 어떻게 부여되는지 과정을 살펴보고, 직접 가상의 도로명 주소를 만들어 보는 체험을 진행했다.

/김영재 기자

교회에서 신도의 지갑 속 현금 훔친 50대 여성 검거

남원경찰서가 10일 교회로 들어가 신도의 지갑 속 현금을 훔친 베트남인 A(55, 여)씨를 절도협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2년전 국내에 입국해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10월 13일 남원시 도통동소재의 한 교회에 들어가 피해자 B씨가 잠시 책상위에 올려논 지갑에서 현금 13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근 기자